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1996. 9.

朴 淳 成 (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	2
III.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전개과정	6
1.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6
2.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개관	9
3. 개발계획 추진 현황	17
IV. 나진-선봉지대 발전 전망	25
1. 투자유치계획 수정안	25
2. 나진-선봉지대 「국제투자포럼」(1996.9)	27
3. 투자 환경 및 전망	30
V.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및 고려사항	36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망	36
2. 정책적 고려사항	38

I. 문제제기

-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오던 남북한 경제교류는 1996년에 들어와 전반적으로 축소되거나 성장추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를 포함한 남북한간의 시범적 경제협사업의 확대는 남북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우리 대표단(기업인, 경제인, 언론인, 정부관계자 등)의 나진-선봉지대 현지 「국제투자포럼」(1996.9) 참가가 무산됨에 따라, 나진-선봉지대에서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 및 여타 지역에서의 남북경제협사업 추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최근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단의 침투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향후 남북 경제관계는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이에 따른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 방향을 분석·전망하고, 남북한 경제관계에서의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자 함.

II.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

- 남북한 경제관계는 1991년 이후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음.
 - 1993~94년의 경우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물자교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 이는 남북한 물자교류가 어느 정도 경제논리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1> 연도별 통관현황(1989~1996.7)

(금액: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1989	18,655	69	18,724
1990	12,278	1,187	13,465
1991	105,722	5,547	111,269
1992	162,863	10,563	173,426
1993	178,166	8,425	186,591
1994	176,298	18,248	194,546
1995	222,855	64,435	287,290
1996.7 (전년동기)	98,608 (138,273)	45,235 (37,407)	143,843 (175,680)

* 1995년 대북 쌀지원(150,100 톤, 237,213천 달러)을 제외한 수치임.

*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2호(1996. 8.1~8.31).

- 1996년도의 경우, 물자교류는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음.
- 1994년 이후 위탁가공교역이 남북한 물자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
 - 위탁가공교역의 주요 품목은 의류, 컬러TV, 자동차배선, 신발 등임.
 - 1996년 8월 현재까지 위탁가공교역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43개 사임.

<표 2> 위탁가공교역 승인현황(1991~1996.7)

연 도	승인금액(천 달러)			비 중(%)
	반 입	반 출	합 계	
1991	23	13	36	0.02
1992	556	413	969	0.5
1993	4,385	3,611	7,996	4.0
1994	16,598	11,966	28,564	12.5
1995	26,490	20,747	47,237	15.2
1996.8 (전년동기)	16,348 (20,198)	23,642 (14,662)	39,990 (34,860)	24.2 (15.1)

* 비중 = 위탁가공교역/총교역

*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2호(1996. 8.1~8.31).

- 물자교류 이외에도 경제인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음.
 - 1996년 8월까지 경제분야(관광·교통 포함)에서의 주민접촉(808건, 1,539명)이 주민접촉 전체(1,929건, 5,873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 41.9%에 달하며,
 - 접촉성사율(성사/승인)도 경제분야(관광교통 포함)의 경우(41.3%)가 전체(34.4%)보다 높음.

-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1990년)된 후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기업은 총 31개 사이며, 시범적 경협사업을 위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주)대우를 포함하여 10개 사임.¹⁾
 - (주)대우는 북한의 삼천리총회사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남포공단 내에 민족산업총회사라는 합영회사(공동투자, 공동운영)를 설립하여, 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을 생산하고 있음.

- 남북한 경제교류를 주도해 오던 물자교류가 1996년도에 들어 축소됨으로써, 남북한 경제관계는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물자교류 축소는 주로 반입부문의 축소로 인한 것으로, 이는 북한 경제의 상품수출능력 한계를 보여 주고 있음.

1) 나머지 9개 업체는 고합물산, 한일합섬, 국제상사, 녹십자, 동양시멘트, 동룡해운(한국특수선과 연변항운의 합작회사), (주)삼성전자, (주)태창, (주)대우전자 등임. 북한 신포지구에 건설될 경수로와 관련하여 주계약자로 지정된 한국전력 제외. 「한겨레신문」, 1996.9.23.

- 물자교류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위탁가공교역은 승
인기준으로 1996년도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위탁가공교역의 지속적 증가 추세는 우리 기업의 북한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나,
- 1996년도에 들어 위탁가공교역의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기술이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줌.

Ⅲ.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전개과정

1.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 1980년대 이후 북한 경제성장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는
①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가 지닌 구조적·제도적 한계,
②장기적 경제침체로 인한 내부적 투자원천 및 물자의 고갈,
③폐쇄경제 및 국가신용도 상실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 도입의 제약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제약 상황 하에서 북한은 외부로부터 경제회생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였음.

○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세웠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합영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법적·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함으로써, 실질적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제일 조총련계 기업인들의 투자만이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朝朝합영사업조차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음.²⁾

2) 朝朝합영사업의 주요 실패 원인으로는 ①북한 당국의 시장경제에 대

- 「합영법」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자, 북한은 지역개념을 도입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³⁾
 - 1980년대 말 구소련 및 동구권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권이 실질적으로 해체되자,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급격하게 축소되었음.
 -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한 자본·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개방하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음.

- 북한 정무원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지대 개발을 위한 경제기구를 만들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음.⁴⁾
 - 북한은 199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 회의에서

한 무지와 몰이해, ②합영사업에 대한 자기중심적·편의주의적 사고와 행동 등을 들 수 있음. 신지호, “朝朝합영사업의 교훈,”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월간 통일경제」, 1996.9.

- 3) 북한이 지역중심적 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일정한 경제성장효과를 거둔 중국의 직·간접적 영향(정책권고와 모방효과)이 큰 것으로 판단됨.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배경에 대해서는 최수영, “북한의 외자유치 추진현황과 전망,” 「統一研究論叢」, 제2권 1호(1993), pp. 181~186 참조.
- 4)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1년 7월 울란바토르회의에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을 자신이 주관하는 동북아지역 협력사업 중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평양회의에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협력방안과 관련하여 세 개의 대안을, 지역설정과 관련하여 두 개의 대안(대삼각 지역, 소삼각 지역)을 제시하였음. 나진-선봉지대는 UNDP가 제시한 두만강 소삼각 지역에 속함. 제성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현황과 전망: 개발대안 및 법제도 중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대의경제 부문 관련 부서를 통합하면서, 지대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우)를 설립하였음.⁵⁾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해 오고 있음.⁶⁾

○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이 지대에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혜적인 무역·중계수송·수출가공·금융·서비스 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임.⁷⁾

-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시장경제를 도입·운용할 계획임.⁸⁾

5) 본 위원회는 지대개발 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위원회 혹은 부처간의 조정·연결을 담당하며, 나아가 나진-선봉지대 소개·홍보, 외국투자유치사업 주선, 각종 안내자료 제공, 북한측 대상자 알선 등 자문봉사 사업을 수행함.

6)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8) 보고 및 김일성의 “1994년 신년사”를 통해, ‘대외시장 개척, 수출품 생산기지 강화, 수출품의 품질향상·생산확대,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증대’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무역제일주의를 공표하였음.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최근의 간결한 요약은 Kim, J. U.,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Policy”(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igur Center 개최(1996.4) 『Korea: Prospects for Economic Development』 세미나 발표논문) 참조.

7)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1.31) 제2조.

8) 김정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정책에 대하여”(일본 투자설명회(1996.7) 발표문)에 따르면, 지대 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업체들도 독자적인

- 북한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도입하면서도, 이로 인한 체제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방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 경제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대외경제에 대한 창으로 활용될 것이지만, 지대와 다른 지역과의 인적·경제적 교류는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될 것임.⁹⁾

-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해 동북아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음.¹⁰⁾
 -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과 연결된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은 경제분야에서 국제기구와 관련국들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임.

2.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개관

-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의 개

경영권을 가지고 시장체계에 맞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음.

- 9) 체제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다른 지역간의 경제교류를 통제할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개선효과와 산업연관효과는 제한되고 단지 외화기득효과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 10)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23.

발계획으로 확정됨.

-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초기 계획안인 1993년 5월의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은 업종선정 및 투자규모에 있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었음.¹¹⁾
- 북한은 1995년 초 3단계 계획을 2단계로 수정하였으며, 1996년 7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명의로 새로운 투자유치계획을 발표하였음.

○ 나진-선봉지대의 관리기관은 중앙대외경제기관(대외경제위원회)과 지대당국(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임.¹²⁾

- 대외경제위원회는 지대의 관리운영에 대한 거시적 지도기구로서 지대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도사업을 담당하며, 총투자액 1,000만 원(500만 달러) 이상, 사회간접자본 건설부문 2,000만 원(1,000만 달러) 이상의 사업대상을 심사·비준함.
-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대의 직접적 관리운영기관으로, 지대의 행정권·국토운영권·사법권을 가짐.

○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제정·개정하고 있음.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 안내」(1993) 참조.

12)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투자, 무역, 봉사 특혜제도」(조선·평양, 1995.2).

-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외국인투자법」(1992.10.5)을 기본으로 하며, 「합작법」(1992.10.5), 「외국인기업법」(1992.10.5),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1.31), 「합영법」(1994.1.20 개정) 등이 있음.¹³⁾

○ 개발계획은 당면단계(1993~2000)와 전망단계(2001~2010)로 나뉘어짐.¹⁴⁾

- 당면단계의 주요 목표는 철도·도로·항만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정비(특히, 국제화물중계를 위한 수송망 체계 형성)와 수출가공산업육성(특히, 나진지구를 지대의 거점으로 육성)이며,
- 전망단계의 주요 목표는 나진-선봉지대를 중계무역·수출가공·금융서비스·관광 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임.

○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개략적 구상은 다음과 같음.¹⁵⁾

-
- 13) 통일원이 발간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1996.9)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투자관련법규는 「환경보호법」·「민사소송법」을 포함하여 총 38개임.
 - 14)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투자, 무역, 봉사 특혜제도」(조선·평양, 1995.2).
 - 15)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투자, 무역, 봉사 특혜제도」(조선·평양, 1995.2)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및 관련법규」(1996.9) 참조.

도시 건설

- 현재 지대내 거주인구는 14만 명, 노동가능인구는 약 7만 6천 명이며, 지대의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인구(특히 노동력)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도시개발 계획이 나진-선봉지대 개발에 있어서 기초계획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은 인구이주 및 신도시 건설계획을 세워 두고 있으며, 개발지대의 주민수를 1단계 30만 명, 2010년 1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 지대 내에 종합적인 서비스센터로 활용될 수 있는 나진-선봉 개발촉진센터 건설을 구상하고 있음.

공업구 개발

-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수출가공기지로 건설하기 위해, 지대를 10개의 지구로 분할하여 공단을 배치할 계획임.

<표 3> 지대내 공단배치 계획

공업구	배치내용	소재지	면적
신흥공업구	경공업 종합단지(업종 제한 없이 희망 공업대상 배치)	나진시 신흥동	220정보
후창공업구	식료공업부문, 보세창고	나진시 후창리	100정보
창평공업구	선박수리·건조기지 건설, 해상구조대 배치	나진시 창평동	40정보
백학공업구	전자자동화공업	선봉군 백학리	200정보
관곡공업구	원유가공·석유화학공업	나진시 관곡동	550정보
홍의공업구	자동차조립·부속품생산, 경공업 공장, 기업소	선봉군 홍의로동지구	180정보
웅상공업구	목재가공·건재공업, 초대형 배수리기지 건설	선봉군 웅상로동지구	200정보
사회공업구	자동차 조립·부속품 공업	선봉군 사회리	350정보
우암공업구	봉사부문 종합경공업 공장	선봉군 우암리	300정보
원정공업구	변강무역 관련 경공업 공장, 첨단과학기술분야 공장	선봉군 원정리	140정보

○ 지대내 공단배치 계획은 나진-선봉지대 기존 공업시설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

- 현재 창평공업구에는 선박수리·건조기지, 관곡공업구에는 선봉정유소와 승리화학, 웅상공업구에는 웅상목재하역장이 위치해 있음.

- 원정공업구는 중국 접경 지역임.

관광 개발

-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호텔, 관광별장, 야영소, 휴양소, 요양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 계획임.
 - 지대 주변의 백두산·금강산·칠보산·경성온천 등 관광자원을 중국·러시아 접경지역과 연결시켜 개발함으로써, 지대를 국제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임.

사회간접자본 확충·건설

- 현재 나진-선봉지대의 사회간접자본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획이 구상되어 있음.
- 항만: 북한은 항구의 전문화를 통해 해상수송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함.
 - 나진항: 대형컨테이너 전문항; 선봉항: 원유전문항; 청진항: 공업산적화물항; 웅상항: 목재전문항.
 - 1단계에는 나진항을 1,700만 톤, 청진항을 700~1,000만 톤, 선봉항을 400만 톤으로 확장하고,
 - 2단계에는 나진항을 1억 톤, 청진항을 1,500~2,000만 톤, 선봉항을 1,500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임.

- 비행장: 선봉에 여객수송량 2,000만 명/년, 화물수송능력 250만 톤/년에 달하는 국제비행장을 건설할 계획임.
 - 지대를 평양, 청진, 백두산, 금강산 등 국내지역과 연결하는 국내노선 및 니이가타,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 훈춘-연길-심양 등과 연결하는 국제노선 개설을 계획중임.
 - 현재 인적수송을 위한 도로·철도연결망이 원활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나진호텔이 있는 안주동에 헬리콥터 착륙장을 건설하여 금년 말부터 이용할 계획임.

- 철도 건설: 청진-회령-은성-새별-나진-청진을 연결하는 전기화된 순환철길이 형성되어 있으나, 단선구간이 많고 설비가 노후되어 있으므로, 복선화와 광궤화를 추진할 계획임.
 - 1단계: 북부순환선 두만강역의 자동화·현대화 추진, 훈융-훈춘간 철교 및 두만강역-하싼간 철교 건설, 조산리역(주차장) 건설, 조산리-나진간 50km 광궤 신설.
 - 2단계: 나진-구룡평-훈융간 120km 표준궤 및 조산리-구룡평-나진간 광궤를 복선화하고 북부지구철도를 중량화·자동화하여, 5~6천만 톤의 중계물량을 처리할 계획임.

- 도로 건설: 기존의 도로를 개진·확장하고, 고속도로를 신설할 계획임.
 - 청진-나진-두만강, 청진-회령, 나진-남양, 은덕-원정 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임.

- 전력 공급: 선봉군의 증유화력발전소를 20만 kw에서 40만 kw로 확장하고, 100만 kw능력의 증유발전소를 신설할 예정임.
- 용수체계 건설: 공업용수와 주거용수를 위해 수원지를 7,000만 m³으로 조성하고, 2억 6천만 m³ 규모의 새로운 수원지를 최종적으로 건설할 계획임.
 -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의 용수공급 능력은 있으나, 상수관이 노후(1940년대 매설)한 상태임.

평 가

- 전반적으로, 북한의 개발계획은 계획의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일본 미쓰이물산 산하의 도요엔지니어링과 싱와물산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의뢰로 1996년 3월 작성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기본구상계획」의 평가에 따르면, 나진·선봉지대는 노동력·관광자원의 부족과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경공업단지나 관광단지보다는 중화학공업단지로 더욱 적절함.¹⁶⁾

16) 오성국(한국미쓰이물산대표), “내가 본 나진·선봉: 투자설명회를 다녀와서(中),” 「한국경제신문」, 1996.9.25; 新和物産株式會社·東洋エンジニアリンク株式會社,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 投資促進ガイドブック」(1996.9) 참조

- 이는 개발계획의 작성·추진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3. 개발계획 추진 현황

- 북한은 나진·선봉지대 투자프로젝트를 꾸준히 발표해 왔으며, 부분적으로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의사를 밝히거나 현재 투자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현단계는 투자에상기업들이 투자의 실현가능성 및 프로젝트의 기회비용을 조사·분석하고 투자결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판단됨.¹⁷⁾
- UNIDO측의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1996년 중반까지 총 33개 프로젝트에 3,39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음.
 - 투자형태는 단독, 합영, 합작이 비슷한 비율임.
 - 1996년 말 시점까지 룩슬리사의 통신부문 투자와 새로운

17) 개념적으로 경제지대 개발프로젝트에 참가할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지대 프로젝트의 추진·실현단계를 투자준비단계, 투자단계, 운영단계(지대내 개발·운영단계 → 지대외부 진출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허근, “나진·선봉지대와 기업의 대북 투자,” 『월간 통일경제』 (1996.9), p. 34.

헬기착륙장 건설로 실제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¹⁸⁾

- 북한의 발표 및 기타 자료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지대내 진출을 포함한 개발계획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¹⁹⁾

항만 부문

- 중국의 연변항운이 1995년 나진항에 11톤 규모의 모빌크레인을 임대·설치하였음.
 - 연변자치주의 공교물자총공사 선호기업집단이 50년간 청진동항을 임차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길림성 철도항구유한공사가 1993년 9월 철도·항구·도로·통신 부문에 대한 합작사업 추진합의서를 교환하였으나, 추진 현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18) 북한측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49개 대상에 3억 5,000만 달러의 투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중 22개 대상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여 3,400만 달러의 투자가 실현되었음. 김수용(김일성대학 교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참여자),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 환경의 우수성에 대하여,” 일본 투자유치설명회(1996.7) 발표문.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및 관련법규」(1996.9);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월간 통일경제」(1996.8); ERINA(環日本海經濟研究所), 「ERINA Report」(1996.8) 참조.

- 제일조총련 기업이 2백만 달러 규모의 나진항 1호 부두 화물중계항을 건설 중임.
- 러시아는 7개 기업으로 컨소시움을 구성, 나진항 3호 부두 개·보수 공사와 4호 부두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외에도 러시아측은 나진항의 알루미늄 터미널 건설공사를 위한 설비와 자재를 공급하고 나진항에 100만 달러를 투자, 비료하역터미널을 공동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도로 및 철도 부문

- 중국의 공교물자총공사가 청진-회령간 도로 확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 북부순환철도(청진, 회령, 남양, 새별, 나진-선봉 연결)의 개발·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홍콩의 페트리칼 크레디트 홍콩사, 핀란드의 내셔널 로드 보드사, 러시아의 7개 기업 컨소시움 등이 도로건설부문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해운 및 항공 부문

- 중국의 연변항운과 한국특수선이 공동으로 설립한 동룡해운이 북한의 해양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995년 10월부터 나진-부산간 컨테이너 정기화물운송을 개시함.
- 제일조총련 기업인 미나미프로젝트는 북한의 조선삼해진흥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북한의 청진, 홍남, 원산항 등과 일본의 마이즈루항을 잇는 컨테이너선의 시험운항을 1995년 말까지 20회 정도 운항하였음.
- 홍콩의 신동북아주식회사가 비행장 건설에 대한 3단계 투자 및 나진-선봉간 헬리콥터 운항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페트리칼 크레디트 홍콩사는 공항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밝힘.

통신 및 에너지 부문

- 태국의 록슬리그룹이 향후 27년간 전기통신사업을 독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3/4분기에 본격적인 건설·운영에 착수한다고 보도되었음.
 - 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이후 최초로 대형 사회간접

자본 합작사업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스웨덴의 이동통신장비회사인 에릭슨이 공동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AT&T사는 1995년 4월 북-미간 국제전화를 개통시켰으며, 현재 디지털 통신장비 판매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미국 스탠튼그룹이 합영회사인 ‘조선설비-스탠튼개발회사’의 설립에 합의, 선봉중유화력발전소의 가동능력을 확장하고 승리화학연합기업소의 원유처리능력을 확장하여 원유가공제품을 생산할 계획임.
 - 중국의 중달집단공사가 승리화학공장임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다국적기업인 셸그룹은 선봉항에 10ha의 토지를 50년간 임차, 원유 및 유류제품 저장보급 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며, 스웨덴의 아르네라손사는 원유저장탱크 시설공사와 승리화학공장 확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서비스업 부문

- 홍콩의 페레그린사는 북한의 대성은행과 합작은행(페레그린-

대성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계약하고, 1996년 2월 평양에 지점을 설치함.

-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은 상업·투자은행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짐.

○ 네델란드의 ING은행은 북한 조선국제보험회사와 합작으로 ING동북아시아 은행을 나진-선봉지대와 평양에 설립하기로 계약하고, 1995년 12월 평양에 지점을 개설함.

○ 홍콩의 아시아개발유한회사는 토지 150만 평을 임대하여, 카지노·아파트·면세점 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 홍콩에 있는 재미교포기업인 동북아시아개발회사는 합영기업 형태로 10층 규모의 나진호텔을 건설하였음.

제조업

○ 북한 통신에 따르면, 나진-선봉지역의 첫 합영회사인 조-러 상업센터주식회사가 북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출자로 설립되어 소비재를 생산함.

- 홍콩의 신동북아주식회사는 주류·청량음료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는 최초의 100% 외국인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일본의 조총련계 기업 중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후 나진-선봉지대에 진출한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미쓰이, 마루베니 상사 등이 1994년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조사를 실시하였음.
- 미국의 Murphy Overseas사가 웅상지구에 투자액 1억 달러 규모의 목재가공종합공장을 설립할 계획임.

평 가

- 전반적으로 볼 때,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현황은 미미하며, 이는 지대의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을 보여줌.
 - 투자관심 표명, 투자의향서 교환, 투자계약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²⁰⁾

20) “계약실적에 비하여 리행실적이 높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계약의 90%가 작년 하반기도부터 올해 상반기 기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리행하자면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김수용,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의 우수성에 대하여,” p. 9.

투자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인하여,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회간접자본·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음.

상품수출시장 및 내수시장의 부족으로 대규모의 외국투자보다 해외동포의 중소규모 투자가 많음.

IV. 나진-선봉지대 발전 전망

1. 투자유치계획 수정안

- 북한은 기존의 투자유치계획안을 수정하여, 1996년 7월 대외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명의로 나진-선봉지대 투자대상종합 목록 및 외자유치우선대상목록을 새로이 발표하였음.
 - 투자대상종합목록에 나와 있는 투자대상은 공업투자대상 101개, 사회간접자본투자대상 15개, 서비스업투자대상 3개이며,
 - 외자유치우선대상은 사회간접자본구조정비 13건, 관광단지정비 1건, 공업단지정비 2건, 상업센터 1건, 제조업 33건 등 총 50건임.²¹⁾

- 전체적으로 현재의 투자유치계획안은 1993년 계획안에 비해 업종이나 규모에서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계획을 재조정하였음을 의미함.²²⁾

21) 투자유치우선대상에 대한 투자 및 3,000만 달러 이상 하부구조건설 부문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부여됨. 위의 글, p. 6.

22) 나진-선봉지대 투자유치계획안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승경, “나진-선봉 투자유치계획 중소기업 업종에 초점,” 「LG주간경제」(1996.8.22) 및 임을출,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 및 실적 평가,” 「월간 통일경제」(1996.8) 참조.

○ 공업투자대상 101개는 식료·음료부문 14개, 방직·피복·피혁 부문 14개, 목재가공부문 3개, 종이·인쇄부문 3개, 화학·수지 부문 17개, 비금속광물부문 6개, 금속부문 3개, 기계·설비부문 7개, 전기·전자부문 27개, 선박부문 2개, 기타 부문 6개로 구성되어 있음.

- 북한의 노동력 활용이 용이하고 기술적으로 적응가능한 부문이 투자대상업종으로 많이 선정되었음.
- 공업투자대상의 규모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100~500만 달러 이며,²³⁾ 전체 대상품목 중 음식료품, 의류·섬유, 전기·전자부품의 비중이 상승하였음.
- 투자형식은 주로 합영기업이나 외국인기업임.

○ 사회간접자본 투자대상은 항만부문 9개(총 7억 1,400만 달러), 철도부문 4개(총 6,929만 달러), 도로부문 2개(총 1억 9,900만 달러)로 구성되어 있음.

- 항만·도로부문에서는 합영·합작, 철도부문에서는 합작이 투자형식으로 제안되었음.
-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는 특별히 BOT방식이 새로이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음.²⁴⁾

23) 일부 대규모 투자대상은 건사·건직공장 2,360만 달러, 폴리에스터섬유공장 1,677만 달러, 석유화학공장 15억 달러, 원유가공공장 14억 달러, 컬러TV공장 4,000만 달러, 냉동기공장 1,730만 달러, 규소단결정공장 2,450만 달러, 집적회로공장 2억 달러, 액정표시판공장 1,490만 달러, 극소형컴퓨터공장 1,500만 달러, 사기축전기공장 1,233만 달러, 수지축전지공장 1,586만 달러 등임.

- 서비스업 부문 투자대상은 비파호텔 3,600만 달러, 안주호텔 2,000만 달러, 투자촉진센터 5,000만 달러 등이며, 투자형식으로는 외국인기업과 합영기업이 제안되었음.

2. 나진-선봉지대 「국제투자포럼」(1996.9)

- 북한의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 활동은 다음과 같음.

<표 4> 북한의 외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

95. 7. 20	손성필 러시아 대사, 모스크바에서 나진-선봉지대 설명
95. 8.	로스엔젤레스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95.9.22~25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북경에서 나진-선봉지대 투자설명회 개최
95. 10.	중국 연변조선자치주 연길시에서 개최된 두만강개발계획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11개국 기업대표 200여 명 나진-선봉지대 답사
95. 10. 25	김수용 김일성대학 교수, 일본에서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강연 및 요미우리신문과 회견
95. 11. 10	강성호 프랑스주재 북한대표부 경제참사관, 네델란드 암스텔담 ING은행 본부 건물에서 '북한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
95. 12.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뉴저지에서 투자설명회
96.1.18~21	김문성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등, 제6차 동북아경제포럼(하와이)에 참석,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설명
96.4.22~23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북한 대외경제정책 설명
96.7.13~31	김정우 등 2개 투자유치단, 일본 및 동남아에서 투자설명회
96.9.13~15	나진-선봉지대 현지 국제투자포럼 개최

* 자료: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월간 통일경제」, 1996.8.

- 24) BOT방식이란 Build-Operate-Transfer 혹은 Build-Own-Transfer로 표현되는 민자유치사회건설사업의 하나로서, 보통 여러 민간 기업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 형식의 프로젝트 전담회사가 약정 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을 시공·운영한 후 프로젝트 소유권을 정부 혹은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프로젝트 개발 기법을 의미함. 임을출,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 및 실적 평가,” p. 91.

○ UNIDO, UNDP,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의해 나진-선봉지대 현지에서 개최된 「국제투자포럼」(1996.9.13~15)은 북한이 1996년 7월에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유치계획 및 기존의 투자현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심을 모았음.

- 더욱이, 북한이 우리 기업 및 관계자들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져 남북 경제관계에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²⁵⁾

○ 북한은 우리 측 투자포럼 참가신청자 중에서 기업인 23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담배공사 관련인 각각 1명 등 총 25명만을 선별초청함으로써, 우리측의 투자포럼 불참을 유도 하였음.

- 북한의 선별초청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고 당국자접촉을 회피하려는 기존 입장 및 남한의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발전략을 보여주고 있음.²⁶⁾

○ 우리 측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17개 국에서 총 407명이 투자

25) 우리 측 참가신청자는 총 53명(기업인 24명, 기업관련인 5명, 공사관련자 1명, 정부관계자 12명, 언론인 11명)이었으며, 기업인들은 200여 명의 신청자 중 선별되었음.

26) 김수용은 임병덕(제미번호사)와의 대담에서, 남한이 참가신청자 중 60% 이상을 정부관리와 언론인으로 함으로써 국제투자포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음. 「한겨레신문」, 1996.9.13.

포럼에 참가하였음.

- 참가자 구성: 기업인 107명, 정부관계자 83명, 전문연구자 33명, 언론인 31명, 관광객 103명, 여행사직원 20명, 기타 30명.
 - 일본: 미쓰비시상사, 마루베니상사, 스미모토상사, 닛쇼이 와이 등 대기업의 경제인과 관광객 100여 명을 포함하여 270여 명.
 - 중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33명.
 - 미국: 재미동포 35명을 포함하여 57명.
 - 네델란드: 10명.
- 「국제투자포럼」에서 2억 8,200만 달러 상당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8억 4,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향서가 교환되었음.
- 투자는 제조업보다는 호텔(홍콩 엠펜러그룹, 1억 8,000만 달러), 병원(재일한인기업, 5,000만 달러) 등 주로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졌음.²⁷⁾
 - 최근 중국 정부가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중국계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계약의 상당부분은 중국기업 및 화교들에 의해 이루어짐.

27) 기타 중국 기업에 의한 오토바이공장 설립(500만 달러) 계약, 태국 록슬리그룹에 의한 조립식 주택건설 및 통신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1,000만 달러) 계약 등이 체결되었음.

○ 이번 「국제투자포럼」은 북한의 개발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나, 남한 기업인들의 불참 및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하여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음.

-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의욕과 현실간의 격차”라는 제하에 나진-선봉지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일 국교수립, 남북관계 개선, 북한 신용도 제고,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²⁸⁾

3. 투자 환경 및 전망

○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의 성공은 투자환경에 달려 있으며, 투자환경은 국가신용도, 생산비, 사회간접자본, 법·제도, 시장성 등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음.²⁹⁾

28) 「朝日新聞」, 1996.9.16. 한편 오성국(한국미쓰이물산대표)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の開發基本構想計劃」(중화학공단 중심)과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 投資促進ガイドブック」를 작성하였지만, 이 점이 일본기업에 의해 나진-선봉지대가 개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음. 또한 오성국은 대북투자의 조건으로 북-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일본 자본만으로 나진-선봉지대를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음. 「한국경제신문」, 1996.9.25. 김정우 역시 9월 15일 아사히신문과의 회견에서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북·일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음. 「중앙일보」, 1996.9.17.

29) 입지경쟁론적으로 투자환경은 거시적 환경, 중간적 환경, 미시적 환경 등으로 분류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투자환경을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음. 김삼식,

국가신용도

- 북한은 불안정한 외교관계, 불투명한 국내정치, 경제난 심화, 대외채무 누적 및 상환불능, 사회주의 체제고수 등의 이유로 투자유인의 첫째 조건인 정치적·경제적 국가신용도가 매우 낮음.
 - 최근에는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북한의 국가신용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

-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이 국가신용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 프랑스의 르몽드지(1996.9.23)에 따르면,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을 통한 개방의지 표명과 무장공비단의 침투라는 두 대립적 사건은 북한의 지도부가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또한 개방을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평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월간 북한뉴스레터」, 1996.9 참조.

생산비

- 생산비를 결정하는 임금 수준, 노동력의 질, 토지 비용, 조세 제도 등에서 북한의 입지조건을 중국·베트남 등과 비교할 때, 북한의 투자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북한은 노동력의 질을 고려한 임금 수준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중국·베트남 등에서 토지비용이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은 토지비용에서 당분간 유리할 것임.
 - 북한은 중국·베트남 등의 국가를 의식하여 외국인투자관련 세제에서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다소 유리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³⁰⁾

사회간접자본

- 현재 나진·선봉지대의 사회간접자본은 매우 열악하여,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항만·철도·도로·통신·전력·용수 등 전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됨.

30)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p. 56~68, pp. 91~101.

-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의 투자를 유인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부족과 제조업·서비스업 투자부족간에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요청됨.

법·제도

- 북한은 1993년부터 꾸준히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을 제정·개정해 왔으나, 법조문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북한이 법·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³¹⁾
- 합영회사의 경우, 경영활동에서 이사진 구성 후 주요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만장일치로 되어 있으므로, 외국투자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해도 경영권 행사가 어렵고, 합영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³²⁾
 - 북한 내부에서 원자재·노동력 등을 공급받으려면, 북한의 해당기관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³³⁾

31)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1996.9); 최수영,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민족통일연구원, 1994.2), pp. 14~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및 관련법규」(1996.9), pp. 26~50 참조.

32) 「합영법시행규정」(1995.7.13), 제54조.

33) 「합영법」(1994.1.20 개정), 제23조; 「합영법시행규정」(1995.7.13), 제75조.

시장성

- 나진-선봉지대는 북한 내부 및 해외수출부문 모두에서 충분한 상품판매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지대내 생산제품의 북한내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계획과의 연계 및 판매통로의 통제 등을 통해 내수시장 접근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됨.³⁴⁾
 - 지대내 생산제품의 미국·EU·일본 등으로의 수출전망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EU·일본 등에서의 불리한 관세조건 등으로 인하여 현상황에서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는 중국·동남아·베트남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조건임.

종합 평가 및 투자 전망

- 북한의 투자환경은 아직 열악한 단계이며, 특히 정치경제적 조건의 개선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히 요청됨.³⁵⁾

34) 「합영법」(1994.1.20 개정), 제23조; 「합영법시행규정」(1995.7.13), 제75조;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1994.3.29), 제40조.

35) 종합평가에 관해서는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pp. 120~127; 김삼식,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평가,” pp. 9~10; 新和物産株式會社·東洋エンジニアリンク株式會社,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 投資促進ガイドブック」(1996.9), p. 8 참조.

- 정치경제적 조건의 개선은 북한의 개방의지 못지 않게 개방의 실질적 성과에 의존하며,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그 자체가 대규모의 외자유치를 필요로 함.
- 이러한 점에서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한 상태임.
- 무엇보다도 개방조건(추진의지)과 개방효과(개방성과), 사회간접자본 미비(확충 필요)와 외자유치 부족(확대 필요) 간에 존재하는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재정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예측불가능성·불안정성 및 지대관리운영인력의 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임.
- 결론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대기업이나 남한 기업의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기 전에는, 서방투자자들의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관심은 투자타당성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큼.

V.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및 고려사항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망

-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동기는 ①북한 노동력 활용을 통한 인력난·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81.5%), ②북한 시장 개척(36.2%), ③원자재 수급(25.2%) 등으로 나타남.³⁶⁾
 - 교역 및 투자 희망 분야는 ①조립금속·기계정비(24.8%), ②전기·전자·통신(15.7%), ③섬유(11.0%), ④비금속광물(5.4%), ⑤자동차·운송정비(4.6%), ⑥음식료품(3.7%), ⑦화학물·화학제품(3.7%), ⑧의복·모피·가죽제품(3.1%), ⑨고무·플라스틱제품(3.1%), ⑩펄프·종이제품(2.1%) 등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투자 형태는 단독투자(외국인기업, 54.7%), 합영투자(25.1%), 합작투자(13.1%)의 순서임.
 - 투자 희망 지역은 평양(22.6%), 나진-선봉지대(19.5%), 남포(17.9%), 개성(11.7%), 해주(10.9%), 신의주(10.9%), 함흥·신포(5.5%)의 순으로 나타남.
 - 교류희망 연도는 1996년 12.7%, 1996~98년 65.4%, 1999년 이후 19.8% 등임.

36)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임. 여론조사의 결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남북 경제교류 희망 실태 조사”에 의거함(1996.6.3~6.29).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월간 통일경제」(96.8), pp. 135~141에서 재인용. 통일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동기는 ①양질의 노동력 활용(41.7%), ②원료·자원 확보(22.9%), ③신시장 개척(16.7%) 순임. 「동아일보」, 1996.2.5.

○ 우리 기업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 기업과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2~3년 이내에 활발해 질 것임.³⁷⁾

-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또는 남한의 인력난과 북한의 자본·기술 부족), 남북한간 지리적·언어적·풍습적 친화력 등을 고려할 때, 남북 경제협력은 일정한 준비단계가 지나면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희망 지역으로 기존 사회간접자본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평양·남포 등이 선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직접 투자는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남한 기업의 진출 및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나진-선봉지대 현지 「국제투자포럼」에 참관한 많은 외국 기업인들은 우리 기업의 불참에 대하여 아쉬워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선행되기를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음.³⁸⁾

3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실시 여론조사 참조.

38) 오성국, “내가 본 나진·선봉: 투자설명회를 다녀와서(上),” 「한국경제

- 그러나, 현재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정치적·군사적 긴장으로 인하여 남북한 경제관계는 당분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음.

2. 정책적 고려사항

- 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 하에서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행위를 지속하지 않는 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남북 경제교류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의 남북한 경제교류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지 않고, 남북한 경제인들간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단계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의 진전 및 이에 따른 북한 경제의 개방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는 계속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현시점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³⁹⁾ 반면 현단계에서

신문», 1996.9.24; 「朝日新聞」, 1996.9.16.

39) 우리 기업은 대금결제, 과실송금 허용, 외화 자금의 반출입 허용, 정치 상황 악화시 투자 금액 회수 대책 등의 제도적 장치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며, 지나친 정부의 지원은 잘못된 남북 경제교류 관행을 만들 수도 있음.

-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물자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북한과의 위탁가공교역이 중국·베트남의 경우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임.
 - 위탁재배 등과 같이 농업분야로 위탁가공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우리 기업의 투자지역 선호도를 고려하여, 시범적 경협사업의 대상지역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함.
- 위탁가공교역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한 기업이 평양·남포·개성·신의주 등의 지역에서 위탁가공교역 내지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려고 시도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는 기업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의 확보가 가능한 중·소규모의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적절한 정치·군사적 조건 하에서 혹은 일정한 정치·군사적 신뢰가 이루어진 후에, 나진-선봉지대를 포함한 여타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추진하도록 함.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소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
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和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